

특별취재



부안해당화로타리 금연캠페인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김정남 회장) 회원들이 부안여중 교문 앞에서 금연은 가족사회의 실천이라며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14일 아침 8시부터 김정남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들과 부안여중 인터넷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내 몸을 아끼는 새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안된다는 금연 홍보를 했다.

김정남회장은 "미래 우리 나라를 짊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금연이 중요하다는 스스로 일깨워 주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동대

장애인 가정 방풍작업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지난 14일,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동대와 함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11세대에 방풍작업을 실시하였다. 성덕면은 지난 7월 18일 희망드림 복지동대 발대식과 함께 독거노인 빈집정비 및 이삿짐 나르기, 전기배선 확인 및 전구교체사업, 장작 만들기 및 비닐하우스 정비사업, 독거노인 병원진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이번에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중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 주어야 할 집을 현지 방문하여 11세대를 직접 선정하고 필요한 재료를 복지동대 자체 예산을 들여 방풍작업을 실시하였다. 희망드림 복지동대는 비록 처음은 서툴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차츰 작업이 익숙해져 서로 도와가며 웃으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경국 희망드림 복지동대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비록 몸은 고되지만 보람을 느낀다며 다음 대상자 발굴 및 뜻깊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갈 예정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 불조심 달 맞아

범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하나의 가정 차양에) 1(한 대 이상 소화기 화재감지기) 9(구비) 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에 나섰다.

겨울 초입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나서 홈페이지와 SNS 등 각종 온라인 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 119체험 한마당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시·군 순회장터 운영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남원시청 로비에서 자활생산물 판매하는 순회장터가 열린다.

이번 순회장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들을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부스를 설치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다. 순회장터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과자류·두유·쌀채소·두부 등의 식료품과 수산물, 차류, 장류, 수공예품, 참기름, 누룽지 등 총 45종으로 가정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로 품질도 우수하고 값도 저렴하다. 호도가 높다. /남원=유영철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이건식 김제시장, 국회방문 김제육교 재가설 등 주요사업 직접 챙겨

이건식 김제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도내 예산소위 위원인 김광수 의원과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 김중희 의원 등을 만나 마지막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가예산 증액 및 지원 요청한 주요 사업으로는 김제육교(파선교) 재가설 사업,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 국제종자산업박람회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이다.

이 시장은 "김제육교 재가설의 경우 노후교량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조속한 개량이 시급하므로 재가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년여 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여전히 담보상태에 있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상임위에서 반영된 예산(28억원)이 반드시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내년에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 국제종자산업박람회,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과 예결위에서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김제시 관계자는 "추수 후 이삭 줄은 심정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가예산이 최종 반영 및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와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대)는 지난 14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정을 나눴어요!"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 배달하며 나눔 실천

정읍시와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대)는 지난 14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생기 시장과 김영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은 홀로 사

는 연자동 진모(84세) 할머니 댁에 3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진 할머니는 "올해는 추위가 일찍 연탄이 찾아와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연탄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연탄 배달 나선 김시장은

"이번에 전달해드린 연탄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갖고 온정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자원봉사센터는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전달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권익위 주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17일 김산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의(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민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 행정분야는 물론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 지적(地籍)분쟁 등 폭넓

은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또한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적 고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사람회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권익위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애로 및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준공식

정읍시를 드나드는 화물 자동차를 수용하는 공영 차고지가 하모동에 조성돼 15일 분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영 차고지 현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 차고지 조성에는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됐으며, 하모동 68·7번지 일원 2만9천421㎡에 주차면 수 178면(화물 자동차 118, 승용차 60) 규모로 조성됐다. 또한 지상 1층 연면적 498㎡의 기숙사는 다목적 합터와 샤워장, 수면실 사무실, 체력단련장, 산책로 등의 복지공간도 갖췄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정적인 주차와 휴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공영 차고지 준공에 따라 주택이던 도로 방생 주차로 인한 소음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물론 일대가 정읍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무료 마을세무사 '호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군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국제·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지원 등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김성수 세무사로 전화(063-561-2535)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 상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오는 23일 군청 민원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현장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희 기자

임실군대한노인회 문화활동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회장 김학성)는 15일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 어르신의 친목도모 및 화합을 목적으로 구담마을, 필봉문화촌,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을 방문해 체험하는 문화탐방으로 진행됐다. 경로당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참여로 사회활동 및 소득창출 뿐 아니라 문화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실=김영희 기자

품목별 연구회 워크숍 성료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의 블루오션 전략 등 집중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16 품목별 연구회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정읍시 22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네 나무가족호텔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기후 변화 대응 전략과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의 블루오션 전략, 리더의 역할과 소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에서 창조력발전소 고영훈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후변화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고소장은 "스마트농업과 ICT 농업 등 농업환경 변화와 트렌드에 대처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향과 농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크숍 박성용 대표는 리더의 역할과 소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리더의 역할과 유기적인 조직체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의 이해와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 농산물의 차별화, 블루오션 전략을 제시하면서 농업 생산 조직체가 끊임없는 자기학습을 통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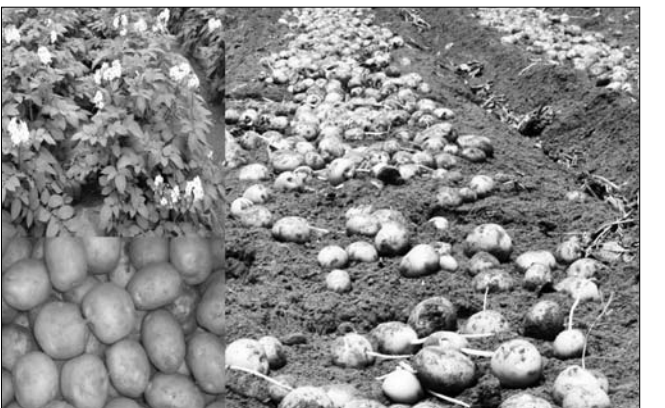
워크숍에 참석한 품목별 연구회는 "정읍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연구회간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고, 정읍 농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역할을 발휘한다면 FTA를 비롯한 어떤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다"며 농업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과 6차 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센터는 정읍농업의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4개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과 전자상거래, '유통·마케팅'에 관한 전문교육과 현장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종·미소평과라 직거래 판매장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재배할 봄 감자 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기술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산 보급종 보급자' 종자 36톤을 보급키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재배할 봄 감자 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기술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산 보급종 보급자' 종자 36톤을 보급키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재배할 봄 감자 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기술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산 보급종 보급자' 종자 36톤을 보급키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 우수한 봄감자 보급 종자 신청하세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다음달 9일까지 농업인 상담소 통해 신청 받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재배할 봄 감자 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기술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산 보급종 보급자" 종자 36톤을 보급키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공급되는 감자 종자는 수미 품종으로 20kg 포장 단위로 공급된다. 가격은 상자 당 3만 천900원이고, 종자는 2017년 2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기술센터 관계자는 "보급종은 체계적이고 엄격한 포장 관리를 통해 생산한 종자로, 발아율이 높고 생육이 좋아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이다."며 기한 내에 희망 농업인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급종 종자 신청·공급과 품종별 특성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식량작물팀(063.539-6311~3) 또는 해당 농업인 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임도 시설 평가 전국 우수

경제성을 고려한 집중 산림 경영 등 사례 발표 호응

정읍시가 산림청 주최로 지난 10일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열린 2016년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 대회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집중 산림 경영과 재해에 강한 임도 개설이라는 사례를 발표, 산림 관련 학계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았다.

시에 따르면 임도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든 산림 내 작업 도로로 산림복합 경영과 산불 예방 마을간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최근에는 각종 산림 레포츠

에도 활용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7개 읍면동에 19개 노선 102km를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조 개량과 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2015년도 시설 임도를 대상으로 전국 26개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참가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자체 4곳과 지방산림청 4곳 총 8개 기관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정읍=김대환기자